Ⅲ. 고려의 등장과 발전

주제) 몽골의 침입과 원간섭기

학 교	
학 번	
이 름	

1. 고려와 몽골과의 만남
   1) 고려에 침입한 (　　)의 잔존세력을 격퇴하는 과정을 몽골이 도움
   2) 이후 고려가 몽골에 많은 공물을 보냈으나, 몽골의 공물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짐
   3) 이 과정에서 몽골의 사신이 고려 국경 지역에서 피살 → 몽골은 이에 대한 책임을 고려에 추궁

2. 고려와 몽골의 전쟁
   ※ 왼쪽의 그림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붙여봅시다.

1차 침입 때 몽골의 침입을 박서, 김경손 등이 귀주성에서 막아냄

⇒

귀주성에서 저지당한 몽골군이 개경을 직접 공격하였으며 당시 집권자인 최우는 수도를 개경에서 (　　)로 옮겨 몽골에 항전

⇒

몽골이 다시 고려를 공격하였으며 (몽골의 2차침입) (　　)에 침입한 몽골군의 총사령관인 살리타를 (　　)가 사살.

몽골은 2차 침입 때 부인사에 보관된 (　　)을 불태우고 3차침입 때 경주에 있는 (　　)을 불태움

⇒

몽골의 5차 침입이 나타나자 2차침입 때 활약한 (　　)가 (　　)성에서 농민과 노비를 이끌고 전투를 승리로 이끎

⇒

결국 최씨 무신정권이 몰락하고 고려가 몽골에 항복하면서 (　　)에서 개경으로 환도

3. (　　)의 항쟁
   1) 원래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집단이나 최씨 무신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여 몽골에 항전
   2) 몽골이 수전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섬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전투

(　　)	(　　)	(　　)

   3) 일본에 자신들의 항쟁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함.
   4) 이후 진압에 나선 (고려군 / 몽골군 /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)에게 패하여 항복

※ 아래의 있는 그림을 일어난 순서대로 위에 붙여 봅시다.

LIVEWORKSHEETS

4. 원나라 간섭기의 고려

1) 왕실, 관제 용어의 격하

① 왕실의 권위 약화

㉠ 왕들의 시호에 사용하는 조, 종을 금지, 모든 왕호는 (　　)으로 시작하도록 하고,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.

㉡ 왕실 용어 격하(폐하 → 전하, 태자 →세자)

㉢ 고려의 왕은 일정기간 원나라에서 거주하였으며, 원나라의 공주와 혼인

② 관제 용어 격하:

구분 \ 시기	몽골 침입 이전	몽골 침입 이후
왕실 용어	조, 종	충○왕
	폐하	전하
관제	중서문하성, 상서성	첨의부
	6부	4사

㉠ 2성 6부를 한 단계 낮추어 1부 4사 체제로 바꿈

㉡ 대부분의 기구의 기능이 약화되고, 용어가 격하되었으나 국방과 군사와 관련된 회의기구인 (　　)는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어 국정 전반을 다루는 회의기구로 기능이 강화되고 참여인원도 증가

③ 몽골의 복식, 풍습을 고려에 강요하면서 (　　)이 유행함

※ 아래의 그림을 보고 ③의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붙이고, 오른쪽에 해당하지 않는 그림을 버리시오.

※ 버리는 곳

④ 각종 관청 및 감시기구 설치

㉠ 고려의 내정을 감시하고,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다루가치 파견

㉡ (　　)의 설치

- 원래는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기구로 일본 정벌을 위한 군사와 물자 징발
- 2차례에 걸친 일본 정벌이 실패한 이후 계속해서 존재하며 고려의 내정간섭 기구로 변화

⑤ 영토의 상실

○ (　　)

- 현재의 평안북도 지역에 해당
- 원나라의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되다가 나중에 반납

○ (　　)

- 현재의 제주도 지역에 해당
- 제주도의 자원을 착취하고,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 원나라의 해양 세력 확장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나중에 반납

○ (　　)

- 쌍성총관부는 현재의 강원도 지역에 해당
- 원나라의 군사적 작전과 관련된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
- 고려 (　　)때 무력으로 탈환

⑥ 각종 인적, 물적 자원의 수탈

㉠ 고려의 처녀와 남자들을 데리고 가 원나라 황실의 공녀나 환관으로 삼음

㉡ 고려의 특산물(금, 은, 인삼, 매(매를 잡기 위한 (　　)이라는 기구 운영)를 수탈

⑦ 당시 원나라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(　　)이 등장

LIVEWORKSHEETS